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대학, 인천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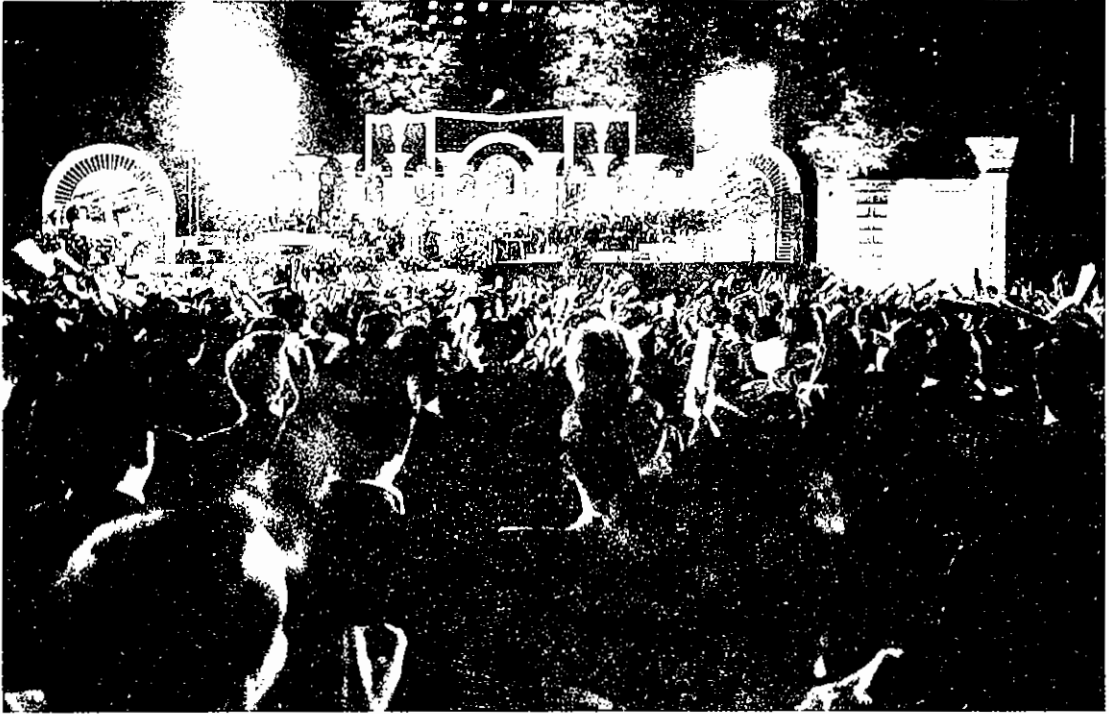
김 학 준
인천대 총장



1. 연 혁

인천대학교는 1979년 인천공과대학으로 개교한 후 1989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으며, 1994년 사립대학에서 시립대학으로 개편되어 제2의 창학을 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의 역사는 일천하지만 시립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후, 1996년을 시발점으로 10년 안에 국내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VISION 1010'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장기발전 계획은 국제화, 정보화, 시민의 대학이

라는 세 가지 기본 이념을 토대로 수립되었고, 발전전략은 대학 규모의 적정화 및 구성원의 정예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특성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강화, 학구적 풍토 조성 및 연구 역량의 제고, 미래지향적 신 캠퍼스 조성, 대학행정의 효율화 및 장기발전의 재정적 기반 구축 등 여덟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부문의 강화뿐만 아니라 시립대학으로서 인천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동북아 지역의 거점대학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교의 현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인천대학교는 1994년 시립대학으로 개편된 후, 1996년을 시발점으로 10년 안에 국내 10위권 대학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국제화·정보화·시민의 대학이라는 기본 이념을 토대로 'VISION 1010'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인천대학교는 보편적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시립대학으로서의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한다는 포괄적인 역할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함으로써 자주적·창의적·민주적 인격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내용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은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

는 인재 양성,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전공·복합학문 성취, 학제간의 개방성과 통합성의 제고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도를 도입하여 복수전공이 활성화되도록 개편하였으며, 교양과목은 인간화·세계화·정보화 교육을 위한 5개 영역 교양선택 과목군의 필수 18학점을 포함한 33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우리 대학은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년별로 체계적이고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

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도모하고자, 학사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수 개인별, 학과별, 단과대학별로 항상 의견수렴과 정보수집 그리고 연구 검토에 전념하고 있다.

3. 현 황

본교는 현재 재학생수 7,000여 명의 소규모 대학이지만, 전문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사업 추진으로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교는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경상대학, 동북아 국제통상대학, 예체능대학의 8개 단과대학에 39개 학과, 2개 학부 77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은 23개 학과에 석사과정의 9개 학과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등 5개의 특수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다.

행정조직 및 기구로는 대학본부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처의 4처, 1실, 9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 전자계산소, 대학신문사, 교육방송국, 어학원, 체육진흥부, 영자신문사, 대학출판부, 학생생활상담소,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부설 연구소로 평화통일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 국가고시연구소, 공학기술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산업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지역사회연구소, 동북아발전연

구원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술혁신센터, 멀티미디어연구센터, 과학영재교육센터, 환경방재연구소, 과학기술정보개발원, 폐기물처리연구센터, 경영혁신원, 신소재연구소 등을 포함한 10개 비법정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중등교육연수원, 학군단, 의무실,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이 설치되어 있다.

4. 교육환경 및 여건

본교가 위치한 인천 지역은 수출공단과 남동공단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전국 2위의 공업중심 도시이며, 인천국제공항, 송도 미디어 벨리와 인천항 개발로 첨단 정보산업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도시이다. 본교는 총 42만9천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 25개 동에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첨단 기자재 및 학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수진은 현재 전임교원 204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 30명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본교 교수진은 국내·외 우수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많은 경륜을 쌓아 교육과 학문 분야에 큰 업적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하여 인천 지역에 산재한 8,000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본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면학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장학금 확충과 기탁기금의 운용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장학금 수혜자 비율이 학기당 30%, 대학원의 경우 50%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학생 활동 지도 면에서는 학생의 자율적 학술활동이 학습 성취효과를 증진시키고 학생 개개인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소중한 교육체험이 된다는 인식 아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학생처 내에 사회진출과를 신설하여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안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5. 특성화 사업

본교는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를 육성하면서 대학의 인지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동북아 국제통상대학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모든 교육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생활관을 신축하여 준사관학교식 합숙훈련, 원어민 교수에 의한 어학 및 통상업무 등의 집중교육과 1년간의 유학을 통하여 국가 및 인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98년 본 과정의 신입생 수능성적은 평균 342점으로서, 이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며 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인천대학교는 8,000여 개의 중소기업



◀ 인천대는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자 비율이 학기당 30% 대학원의 경우 50% 이상에 이르고 있고, 학생들의 자율적 학술활동과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국제통상대학,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센터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립대학으로서의 지역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업이 산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과 신규 산업인력 육성, 산·학·연 보유 개발역량의 연계를 통해 지역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인천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 등의 국책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기술혁신센터는 산업자원부 지정 국책사업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의 기술 지도, 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산업정보 수집 분석 및 유통과 기술연구 집단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최우수 센터로 평가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의 기술 지도, 애로기술 연구, 기술이전 사업과 병행하여 수출진흥 확대사업, 인터넷 무료 홍보사업, 무료 경영진단 사업 등의 컨소시엄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송도 미디어 벨리의 구축으로 대표되는 인천시의 역점 사업인 21세기 첨단 정보통신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대학은 지역협력 연구센터, 송도 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개발원 및 과학영재 교육센터 등의 사업도 역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역협력 연구센터사업은 한국과학재단의 지정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기술 지원사업, 이동통신 및 영상처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산업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송도 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은 인천대, 인하대, 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는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지정을 받아 인천 지역 업체에 대한 고

도기술 지원사업, 기술창업 보육사업, 정보유통망 구축 및 운영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대학에서는 폐기물처리 연구센터, 신소재 연구센터, 멀티미디어 연구센터, 기술혁신 연구센터, 경영혁신 연구센터, 생명공학 연구센터 등을 설립,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교육 및 연구집단을 육성하고 있다. 과학영재 교육센터는 교육부로부터 인천 지역 영재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과학 분야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 제공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과학영재 교육센터는 본교 중등교육 연수원과 함께 타지역에 비해 열등한 인천의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동북아 중

심도시이며 첨단 정보도시를 목표로 인천 지역이 요구하는 첨단 과학 및 기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본교는 인천 지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시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교직원·학생의 농촌봉사활동, 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봉사활동, 환경관찰 및 개선활동과 같은 직접적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천 지역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IMF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인천 지역 산업체 재취업 교육사업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천 지역

내 총 23개 과정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육센터, 소프트웨어 창업 동아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벤처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사회봉사 참여는 지역사회와 소외 계층에 대한 실질적 봉사뿐 아니라 전 인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개인, 동아리, 학과 및 대학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플라워 아트 디자인 영어회화, 생활체육 등 23개 세부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부분학점 인정과 같은 새로운 학점제도를 통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원에서는 어학원과 협동으로 지역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어학교육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걸림돌이 있어 집중하지 못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감수련, 평

상법, 뇌호흡 등의 훈련을 통하여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긍정적이고 자신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교육하는 '중·고생 집중력 개발 수련'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도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천대학교는 시립화 이후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인천광역시 및 시의회와의 협조를 받아 미래지향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 규모와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인천대학은 시립대학으로서 인천 지역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여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취업 및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는데 대학의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은 인천대학을 인천 지역의 명문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